

미래의 고등교육*

CERI/OECD : 대학의 미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정규 | 전 캐나다 센트랄 칼리지 학장

세계화의 문명사적 흐름을 타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은 지식기반경제사회를 선도하며 미래 고등교육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매체로 한 정보시스템, 특히 인터넷은 세계광역웹, 웹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등과 같은 하이퍼미디어 및 이동통신매체를 통하여 정보의 홍수와 지식의 보편화를 이루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고등교육은 기관과 제도 전반에 걸쳐 혁신과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필자는 2008년 12월에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와 프랑스 정부가 함께 발주한 “Higher Education to 2030” (고등교육 2030) ‘대학의 미래’(University Futures)에 관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몇몇 서구 학자들의 해안적 이론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미래 고등교육의 정책 수립과 전략에 대한 비전 내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CERI/OECD 연구는 미래 고등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섯 가지 핵심적인 주제---인구 변화(Demographic

Change),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세계화(Globalization), 시장과 유사 시장의 힘(Market and Quasi-Market Forces), 대학의 연구 활동(University Research), 노동시장 수요(Labour Market Demand)--를 설정하고 각 주제와 이와 관련된 사안들이 미래 고등교육의 제도와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각 주제별 연구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2011년 3월 현재 두 가지 주제(인구 변화, 세계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만 발간되었고 나머지 주제들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선정된 여섯 가지 주제들은 기존 고등교육의 기관, 제도, 형태, 특성 및 기능을 변화시키고 미래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더욱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은 미래 대학의 형태, 특성, 기능에 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2008)는 “대학의 미래”(University Futures) 연구에서 “고등교육을 위한 네 가지 미래 시

나리오”(Four Future Scenarios for Higher Education)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개방 통신망(Open Networking); 2. 지역 사회 봉사(Serving Local Communities); 3. 새로운 공공 책무(New Public Responsibility); 4. 고등교육사업(Higher Education Inc.). 이 시나리오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된 집약적 통신망, 대학의 국가적/지역적 사명, 시장력과 재정적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상업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장래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네 가지 분야를 정책분석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를 미래 대학의 기능과 책무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정보통신기술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개방화된 미래 대학은 세계화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 공헌과 책무성 제고,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 유지를 위한 학습과 연구 개발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 대학은 온라인 교육의 가속화를 초래하여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프로그램, 학위과정 및 학습 방법이 개발되어 미래 학자 Willis W. Harman의 주장처럼 Multi-Mode University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미래 비즈니스 전략과 조직 전

이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Don Tapscott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인터넷, 디지털에 익숙한 N세대 혹은 D세대는 새로운 마케팅 규칙인 ABCDE, 즉 A(Anyplace: 모든 장소), B(Brand: 브랜드), C Communication: 통신), D(Discovery: 발견), E(Experience: 경험)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능숙한 정보 수집력, 멀티 태스킹 능력, 선택의 자유와 혁신 주도, 협업과 관계 중시를 특징으로 하는 N세대는 마케팅 규칙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과 제도를 포함한 기존 사회의 틀을 바꾸고자 한다.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개방원격학습 시스템(Open and Distance Learning System)을 갖춘 e-learning이 주축이 되는 N세대 혹은 D세대에 의한 미래의 고등교육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The University of Google”의 저자 Tara Brabazon(2007)이 지적한 것처럼 컴퓨터와 새로운 통신 기술을 매체로 한 정보시스템이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 혁신의 바람을 가져다 주지만 학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기에 사회시스템, 즉 다 큰 미디어나 사회 구조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온라인 교육의 확산은 앞으로 위키피디아, 구글, 유튜브, 크라우드소싱 등과 같은 집단지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융합

* 사회학자인 Pierr Levy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개념을 그것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발휘되는 그룹 지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집단 지성은 우수한 한 명의 지능보다 여러 명의 덜 우수한 지능의 조합이 더 우수한 결과를 만든다는 James Surowiecki의 “군중의 지혜”(Wisdom of Crowds), Francis Heylighen이 주장한 기존의 인간 지능의 한계를 초월한 지능인 “지구적 두뇌”(Global Brain), Norman Lee Johnson의 공생적 지능(共生的 知能: Symbiotic Intelligence) 등의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기술과 고부가 가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발달시키고,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인 Semantic Web을 발전시켜 기존의 교육 방식과 제도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지식노동자의 개념을 고안한 경영학자이자 사회생태학자인 Peter Drucker는 과학기술을 지식기반시대의 사회변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간주하면서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지식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은 평생교육 확산과 지식경영자 양성 그리고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자율성 및 창의성을 수용해야 한다. 국가와 대학은 고등교육에 대한 실현 가능한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에 병진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지식시스템의 개발과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미래비전’(2010)은 30년 후 우리 사회 비전

을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으로 제시하고 과학 기술 인재 양성, 지식 재산 전문 인력 확충,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개방형,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식 클러스터 육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교과부의 ‘과학기술미래비전’과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이 급속히 변화하는 후기정보시대에 미래 고등교육 발전과 혁신을 위한 합당한 시나리오나 타당한 전략인지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에 걸친 지나치게 육중한 ‘과학기술’의 갑옷 대신 ‘교육’의 색상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간편한 옷으로 갈아 입고, CERI/OECD의 프로젝트인 “대학의 미래”에서 예시된 것처럼 우리 나라의 미래 고등교육 혁신에 필요한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와 이와 관련된 사안을 고등교육 전문가가 포함된 여러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한국의 미래 고등교육’ 위주의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한다.

필자소개

이정규 | 전 캐나다 센트럴 칼리지 학장

미국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고등교육행정을 전공하여 철학박사(Ph. D.) 학위를 받고, 캐나다 센트럴 칼리지 학장,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학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연구본부 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 대학원 대학행정전공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또한, 국제학술지 Radical Pedagogy, Globalization and Health 평가위원, 한국대학신문 전문위원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Korean Higher Education: A Confucian

Perspective”, “Historic Factors Influencing Korean Higher Education”,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한국의 고등교육: 종교와 문화의 관점에서”, “대학, 행복을 위한 황금 열쇠인가?” 외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 저자의 논문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브라질, 인도, 중국, UN, OECD, UNESCO의 저명한 국내외학술지에 게재 혹은 소개되었으며, 일부 논문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출간되었다.